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005. 6. 23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순서

- 중소기업전문CB 정착
- 중소기업 직접금융 원활화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중소기업의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의 필요조건

- 효율적인 자원배분 결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가 원활하게 생성·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전문CB 정착

- 일정규모에 오른 중소기업이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중소기업 직접금융 원활화

- 일시적 자금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 회생을 지원하고,
- 충격을 최소화하며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중소기업전문CB 정착

기업CB (Credit Bureau)란?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Pooling) 관리하면서 이를 분석처리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의 요구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도입 배경

● 그동안 일부 신용정보회사가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 개인CB 또는 신용보증의 부수업무에 그침

● 금융기관별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시 기업정보 수집·가공에 애로
▶ 금융기관 자체 CSS의 신뢰수준 미흡

기업전문
CB부재

담보대출
관행의
주요원인

기업전문CB
설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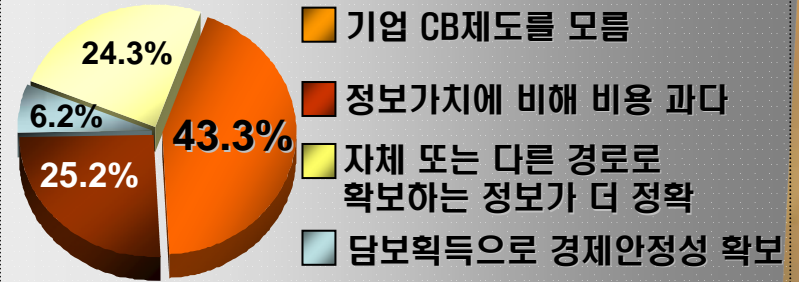
신보·기보의
신용정보부문
분리

종전 기업CB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기업CB에 대한 낮은 인지도

- 기업 CB제도를 전혀 모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 기업간의 판매-공급관계에서 거래상대업체 판단을 위한 CB이용 사례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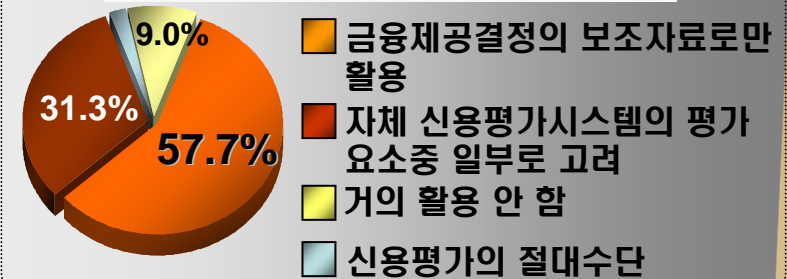
기업CB를 이용 않는 이유(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 관련 정보 부족

- 원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정보량 부족
- 금융기관 여신심사시 CB정보 활용은 단순참고 수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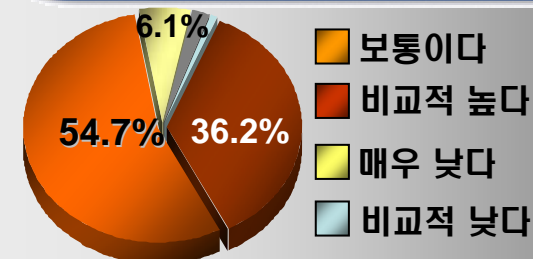
기업CB 활용도(금융기관 대상)



정보의 질적 수준 미흡

- CB제공 정보의 정확성이 높지 않음
- 다양한 부가정보도 미흡

기업CB 정보의 정확도(금융기관 대상)



중소기업전문CB 추진현황

중소기업전문CB 출범

- 신보·기보의 신용부문 분리를 통해 **한국기업데이터(주) 설립 ('05.3월)**
-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CB 보유정보의 관리기간 연장

- CB사가 신용등급 산정 목적 등으로 수집한 연체정보의 관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05.4월)
- ➔ **연체정보와 우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용평가기능 제고**

중소기업전문CB 활용 사례

K은행 미래채권담보대출의 CB보고서 이용

한국기업데이터(주)의 C-cube*에서 신용등급 BB- 이상일 경우 담보없이 신용대출 허용

C³ - Corporate Credit Certificate

D그룹의 CB정보 활용사례

D그룹 6개계열사는 1,500개 협력업체 관리에 C-cube를 이용, 거래상대업체 재무건전성 등의 판단근거로 활용

금융정보 집중 (Pooling) 활성화

- 참여기관간 정보제공 협약서 등을 통해 **자유적으로 정보를 교환 · 공유**토록 하고, 정보제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혜택 부여
 - ▶ 정보제공의 법적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
 - ▶ 정보제공기관에 대한 CB정보 **이용 수수료 인하** 등 정보집중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방안 마련

공공정보 공유 · 집중 지원

- 규제개혁기획단 주관으로 노동부, 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정보 집중 · 공유**를 추진[05.7월중]
 - ▶ 임금체불정보 · 납세정보 · 4대보험(고용보험 등) 정보 등 공공정보의 집중 · 공유를 확대하여 **CB정보의 정확성 제고**

CB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CB 신용평가등급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성장기반 조성

- ▶ 공공기관 · 지자체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기업CB의 신용평가등급 제출 의무화 추진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05.7월 예정)

중소기업CB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기업CB 이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CB에 대한 인지도 제고**

- ▶ 중기청 · 중진공 · 한국기업데이터(주) 합동으로 기업CB에 대한 방송 · 신문 · 공익광고 등을 추진('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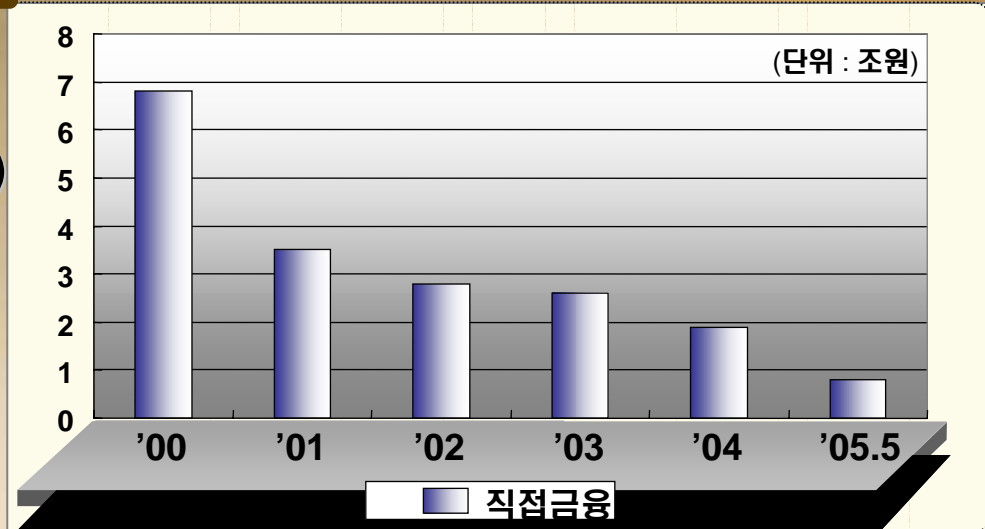


중소기업 직접금융 원활화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 현황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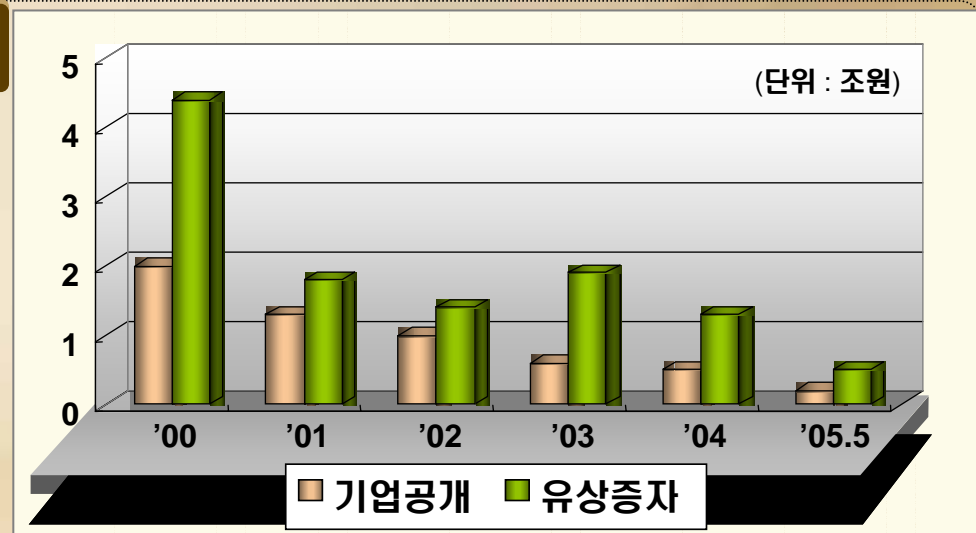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추이

- 중소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은 증시가 활황이던 2000년(6.8조원) 이래 감소 추세 지속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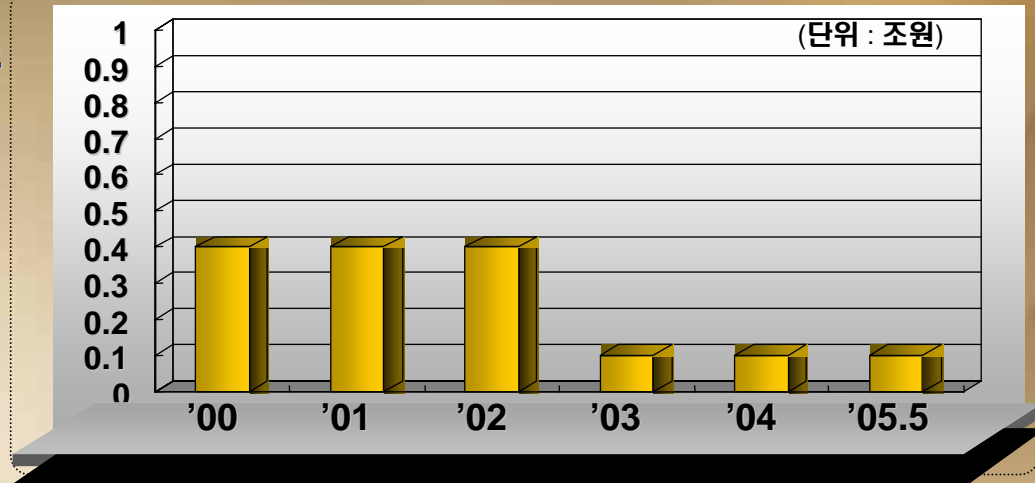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코스닥시장 침체로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규모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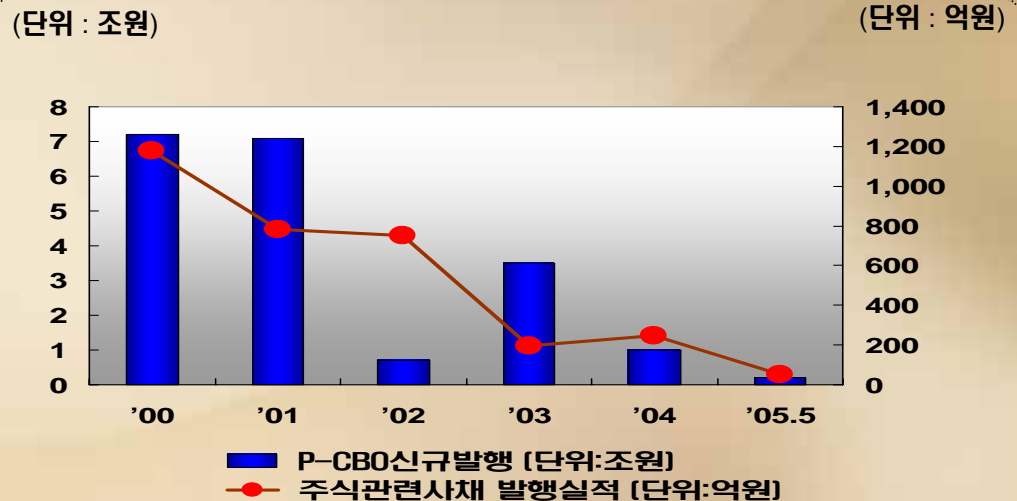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 현황 (2/2)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 금융회사의 안전위주 자금운용 경향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와 P-CBO 발행도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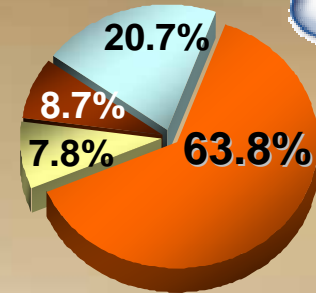


문제점 (1/2) –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거래소시장의 공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 지속

■ 엄격한 상장요건 등으로 자금조달 곤란

※ 기업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부채비율
요건 적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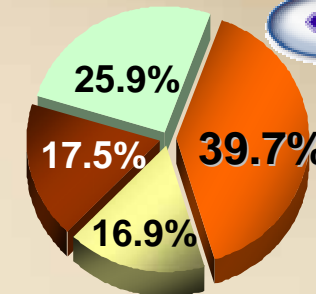
주식발행시 개선필요사항

- 조건·절차 개선(발행 및 상장)
- 발행기간 단축
- 발행비용 감소
- 기타

상장후 공시·회계 등 상장유지 부담 과중

■ 상장중소기업은 공시·회계 등의 부담이 증가

※ 美 SEC는 중소기업의 공시·회계 부담 경감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05년말 완료 예정)



코스닥 법인의 상장유지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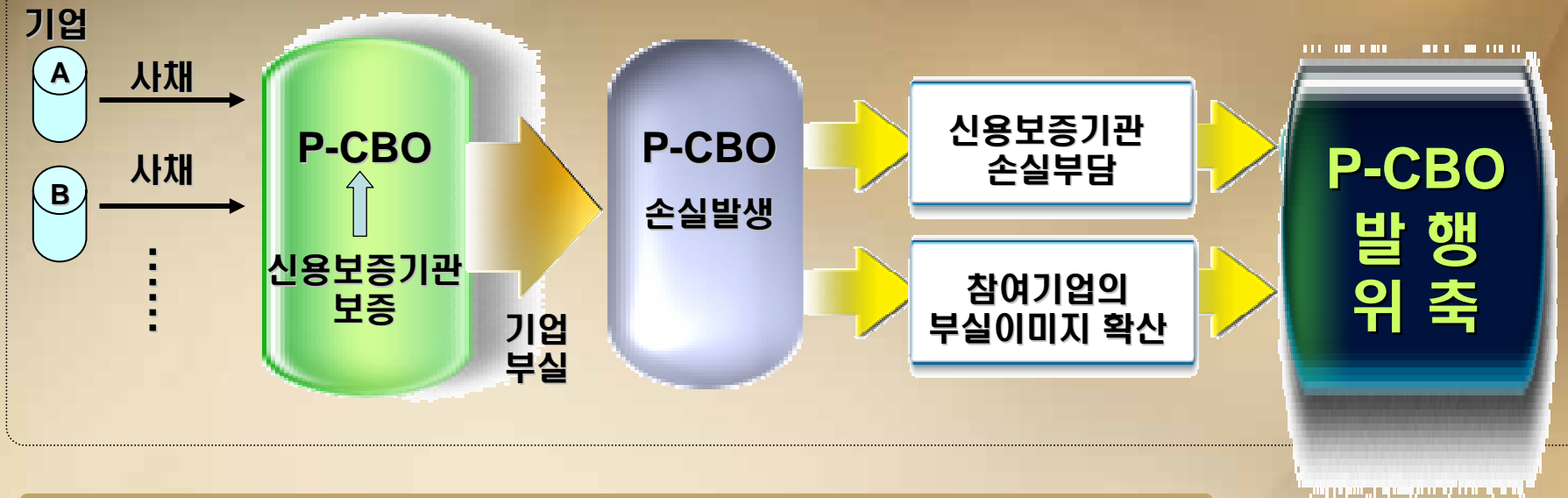
- 신고·공시의무
- 증권집단소송
- 엄격한 퇴출기준
- 기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A) 애로

■ 합병비율 산정시 기업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원활한 합병 추진에 어려움

- 일정산식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의무화 등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P-CBO의 신인도 저하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사채의 투자기피 지속

-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높이 책정토록 규제하고 있어,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취득시 보다 투자매력 저하
 - 유상증자 : 과거1개월간 시가중 낮은 가격, CB 전환가격 : 과거 1개월간 시가중 높은 가격

개선 방안 (1/2) –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증시 이용기회 확대

- **상장시 부채비율 요건의 탄력적 적용**
 - 영업현금흐름 등 보조지표 충족시 상장 허용
- 제3시장을 **프리보드(Free Board)로 재출범('05.7.1)**
 - 등록기업은 코스닥 상장전 지분10%미만 주주의 지분변동 허용 (일반기업 : 지분5%미만 주주)
 - 1,000여개 우량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유치

상장 유지부담 경감

- **공시부담 경감** : 기업규모에 맞게 공시의무 차별화
- **회계부담 경감** : 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 **투자자의 관심 제고** :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시장소외 종목에 대한 기업분석자료 공급 지원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 지원

- **기업가치 평가 및 합병비율 산정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제고**
- **합병관련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
 - 합병전 평가기관 선정관련 공시 폐지

개선 방안 (2/2)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매출채권담보부 ABS 도입

- 중소기업의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
 - 매출채권이 담보로 제공되므로 신용보증비율 인하 가능
 - ⇒ 동일한 재원으로 신용보증혜택 확대 가능
 - ⇒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회전식(Revolving) ABS 도입

- ABS에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와 국공채를 혼합
 - 중소기업 회사채를 국공채와 교체하여 계속 매입 가능
 - ※ 기존 P-CBO는 최초 발행시에만 자금공급
 -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

전환사채 등 발행관련 규제완화

-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격 산정기준을 준용
 - 주식전환기준 : 과거 1개월간 시가중 높은 가격 기준
 - ⇒ 과거 1개월간 시가중 낮은 가격 이상
 - ⇒ 전환사채(CB) 등의 투자매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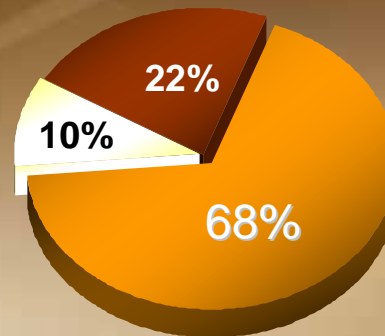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워크아웃업체 대상)

워크아웃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워크아웃제도가 빠르게 정착

- '04.7~'05.4월중 1,700개 기업에 대해 2.1조원의 채무재조정 시행



- 전반적으로 도움이 됨
- 채권은행의 안정적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
- 별로 도움이 안됨

워크아웃 성공사례

특허권 등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S 의료장비업체

- 위기- 세계3번째 MRI개발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동성 압박에 직면
- W/O- 채무면제, 만기연장 등
- 효과- 외자유치 성공 등 경영정상화

경영외적인 이유로 경영애로에 직면한 기업

B 자동차부품판매업체

- 위기- 관리직원의 자금횡령으로 유동성위기 발생
- W/O-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 효과- 차입금상환 등 경영정상화

경영진 회생의지가 강하고 자구노력 여력을 갖춘 기업

D 섬유제품제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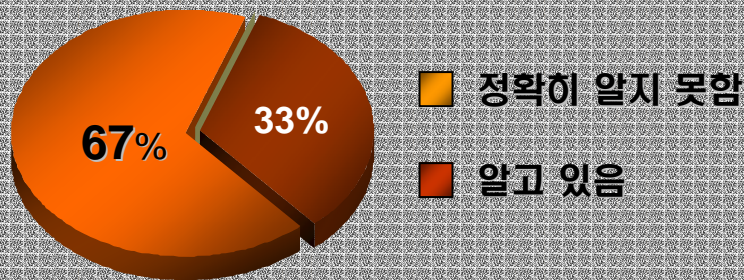
- 위기- 해외거래처와 분쟁으로 수출대금 장기 미회수
- W/O- 대주주 사재출연과 병행한 채무재조정
- 효과- 영업재개 등 경영정상화

개선 필요사항 [1/2]

(1)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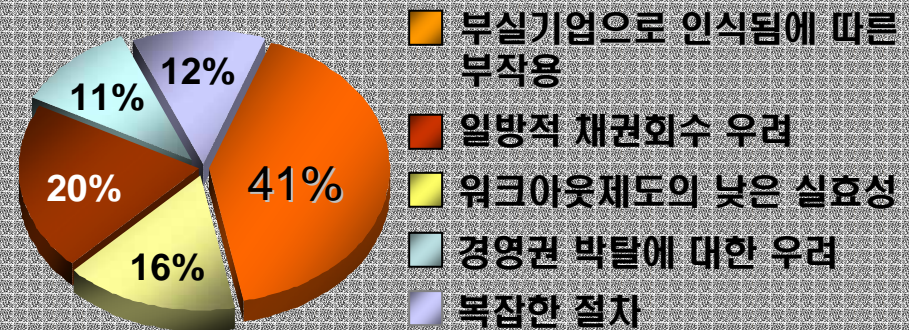
■ 워크아웃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중소기업 대상)



■ 워크아웃시 부실기업으로 인식되어 거래처 납품중단 등 우려

◆ 워크아웃에 소극적인 이유(중소기업 대상)



(2) 공동워크아웃 실적 미흡

■ 채권은행 · 보증기관의 협조노력이 다소 미흡

■ 다른 채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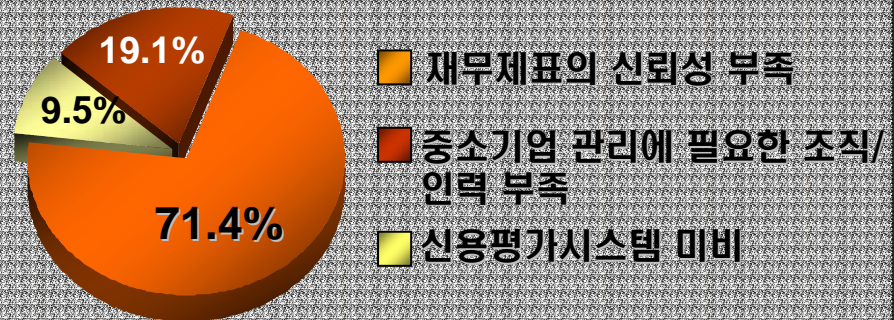
공동워크아웃
실효성 저하

개선 필요사항 (2/2)

(3) 소극적인 대상기업 선정 행태

- 중소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신용평가시스템에 의존한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에 한계
- 거래 중소기업의 부실노출을 꺼리는 은행지점이 대상기업 선정에 소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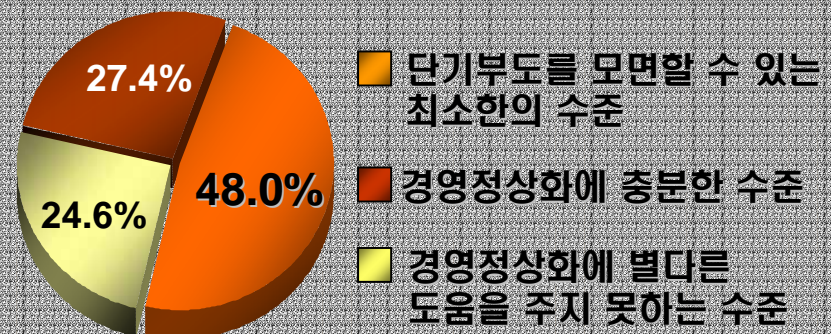
◆ 중소기업 신용평가지 애로사항(은행 대상)



(4) 만기연장 위주의 채무재조정

- 은행들은 추가부실 가능성이 있는 신규자금 지원 등에 소극적
- ➔ 워크아웃 중소기업들의 획기적 경영개선 견인에 한계

◆ 채무재조정의 효과(중소기업 대상)



개선 방안 [1/2]

은행지점의
워크아웃 신청
유인 제고

- 은행지점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해당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지점평가시 불이익 면제**
- 은행지점에서 워크아웃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기업여신이 3개월이내 부실화 될 경우, **지점평가시 불이익 부과**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유도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은행의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실적 반영**

개선 방안 [2/2]

공동워크아웃 실효성 제고

- 금감원내 워크아웃 지원반 기능을 확대하여 채권행사 유예의무 등 **협약위반 채권기관 적발·감독 강화**
- 채권은행협약 개정을 통해 **채권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도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워크아웃 제도 인식 제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보증기관, 은행 및 감독당국 합동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 추진**

감사합니다